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 맥락 및 쟁점을 중심으로

최 연 실(상명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가족 변화의 다양한 맥락과 주요한 관련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더듬어 보는 실험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둘째, 현재 시점에서 다면적인 양상을 띠는 가족의 면모들을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추적하고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현재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어떠한 쟁점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가족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자료를 이차적으로 활용하여 논점을 도출하는 이론적 성격을 갖는 연구로서 가족의 변화양상을 전반적이고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인구학적 변화는 통계청의 통계자료, 가족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는 2010년 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가족형태의 변화는 관련선행연구들,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관련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맥락을 살펴보는 분석틀은 생태학적 관점을 빌어 구성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의식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개인, 가족관계의 변화는 젠더와 세대, 계층 등 미시체계의 차원, 가족형태의 변화는 중간체계 수준의 차원,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역사적 흐름과 발달적 변화의 차원, 인구학적 변화는 거시체계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한국가족 변화의 맥락과 양상 속에서는 제도 대(對) 자율, 위계 대(對) 평등, 공동체주의 대(對) 개인주의, 폐쇄성 대(對) 개방성, 획일성 대(對) 다양성, 도구성 대(對) 친밀성 등 여섯 가지의 쟁점이 도출된다.

한국가족이 현상적으로 혼성적·중첩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탈근대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부계혈통중심주의나 가족집단주의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변해가는' 특성이 아니라 근대화과정부터 한국가족이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특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다시 말해, 서구적 모델로 바라볼 때와 같이 한국가족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형에서 서구의 근대화된 가족형으로 움직이는 '과도기상'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과정에서부터 한국적 특성과 서구에서 유입된 특성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혼성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독특한 자기발전 방식으로 가족현상이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근대화 이후 한국에서의 가족을 둘러싼 여타환경의 조건이 서구적 모델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은 여전히 서구적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기존의 서구적 모델에 맞추어 해석하기보다는 한국적 토양에서 가장 적실하게 설명해내는 이론틀을 찾아내고 발전시켜가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가족이 보여주는 경험적 자료에 기반 하여 보다 적절한 설명력을 갖춘 이론적 모델을 찾아내려는 진지한 학문적 작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